숨어서 아름다운 보성강

"동방의 명승지는 금강산 삼일포와 보길도가 최고인데, 그윽한 아취(雅趣)를 갖게 하는 공은 물이 지나는 길목에서 강 언덕의 꽃 자치와 녹음과 온갖 새소리로 가득하다. 그래서 강가에 가면, 터질 듯한 생명력이 느껴진다."(보부상)

글 | 최성민 여행전문기자

江

보성강 가는길 자 가 용 : 서울➔경부고속도로➔천안논산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광주-순천간)➔석곡들머리 진입 ➔석곡면➔보성강
대중교통 : 서울➔광주. 순천. 남원(곡성행)➔곡성버스터미널➔곡성교통(석곡방면)➔보성강

주변숙박 리버사이드모텔(061-363-8201), 종명장모텔(061-362-3069), 대원장여관(061-363-0362)

주변관광지 대황강자연휴식지, 태안사, 용산재(신숭겸장군 사당), 압록유원지

† 강은 태초에 사람들의 삶터였다. 세계의 모든 문명이 강가에서 일었듯이 강은 언제나 뭍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한다. 더욱이 봄이 지나는 길목에서 강 언덕은 꽃 잔치와 녹음과 온갖 새소리로 가득하다. 그래서 강가에 가면 터질 듯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강은 산이 만들어 준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엔 강 또한 많다. 5대강엔 못 들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원래의 모습이 잘 보존된 작은 강이 있다. 전라남도 보성에서 시작되어 섬진강 옆구리에 합수됨으로써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보성강이 그곳이다.

† 보성강은 폭이 좁고 길이도 짧으며 유역면적 또한 하찮다. 중국의 장강(양쯔강)같은 덩치에 비하지 않더라도 도도한 한강이나 영산강에 비하면 실개천이라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보성강은 나름대로 샛강, 다양하고 정겨운 모습의 다리, 호수, 댐 등 여느 강이 거느리고 있는 부속물이나 장식물을 다 거느리고 있다. 또 '전망 좋은 곳' 이라고 하여 전라남도가 지정한 강 풍경 좋은 곳이 두 군데나 있고, 고인돌공원 등 다른 강들이 부러워할만한 경관과 문화유적도 갖추고 있다. 특히 다른 강이 갖추고 있지 못한 강가의 고인돌공원을 보면 이름없는 강이지만 태고의 문화를 잉태한 강임을 알 수 있다.

† 강이 이루어지려면 시원이 되는 샘이나 물을 내려주는 큰 산이 있게 마련이지만 보성강은 별로 높지 않은 여러 산의 작은 골짜기들과 특별하지 않은 들판의 옹달샘 물줄기들이 모여 강을 이룬다. 보성강의 모태가 되는 산이 있다면 일림산이라는 높이 600여m의 산이다. 보성강은 길이 120.30㎞, 유역면적 1,246.70㎢로 보성군 웅치면(熊峙面)과 회천면과의 경계에 있는 일림산(溢林山, 664m)에서 발원하여 동류하다가 보성을 지나 소백산맥의 지맥 사이에 있는 종곡(縱谷)을 감입곡류(嵌入曲流)하면서 북동쪽으로 흘러, 전라선(全羅線) 압록역(鴨綠驛) 부근에서 섬진강으로 유입하는 강이다. 덧붙여 보성강의 상류에는 보성강댐이 축조되어 수력발전뿐만 아니라, 득량만(得粮灣) 연안의 간척지에 관개용수를 보낸다. 중류에는 주암다목적댐이 축조되어 넓은 주암호를 형성, 여천 · 광양 등의 공업단지에 공업용수를 보내고 있으며, 강에는 은어 · 자라 등이 서식한다. 또 주암호 근처엔 주암호의 수량을 조절해주기 위해 산허리에 대규모 물터널을 묻어 연결한 상사호가 있다.

† 보성강 줄기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구간은 주암댐~곡성 압록 사이이다. 특히 곡성 목사동면 신기리에서 오곡면 압록리까지 섬진강과 합류하는 약 18㎞ 구간은 곡성에서는 대황강이라고도 한다. 이곳에는 예로부터 8대 어전(일명 : 쏘)이 있어 은어, 메기, 쏘가리, 참붕어, 참게, 잉어 등 담수어가 많이 서식하여 지역주민들은 봄철이면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고 노는 천렵이 성행하였으며, 여름철에는 횃불을 들고 물고기를 잡는 횃불놀이가 아

름답다 하여 곡성의 팔경 중 하나인 대황어화(大荒魚火)로 유명했다. 특히 물이 맑고 깨끗하여 은어, 조개 등 어패류가 많아 이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도 있었는데, 주암댐 건설로 수심이 낮아지면서 어패류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등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보성강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자 강변공원 조성, 자연친화형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고, 강태공들의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주변에는 곡성의 옛 현터인 욕천현의 동헌터, 무형문화재인 돌실(가는 삼베) 나이와 낙죽장도, 반구정 유원지, 태안사, 신숭겸장군의 유적지 등 잔잔한 볼거리가 산재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지난 3월말엔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주최한 '강사랑 마라톤' 이 이 구간(석곡~압록)에서 열리면서 한국 제일의 마라톤 코스라는 평을 받았다. 42.195km가 한 점 티끌없이 소나무, 매화나무, 벚나무, 대나무 등으로 이뤄진 강변길, 그리고 큰 비가 와도 전혀 흙탕물이 일지 않는(주변 산지를 개발하는 일이 없기 때문) 강물 등 마라토너들이 달리기엔 천혜의 적지라는 것이다. 이 구간은 또한 매화, 산수유, 벚꽃, 살구꽃, 개나리, 철쭉, 목백일홍 등 철따라 피는 꽃들이 찾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늘 행복하게 채워준다. 또 가을엔 벚나무의 단풍이 퍽 볼만하다. 압록유원지 물놀이장(강변축제장), 그 옆의 '전망좋은 곳' , 태안사, 석곡 코스모스 축제장, 주암댐, 송광사, 주암호, 화순 고인돌공원, 보성 문덕면 서재필 생가, 보성다원 등이다. 곡성 압록유원지에서부터 보성 들머리 문덕면에 이르기까지 보성강변 주변에 각종 문화유적과 볼거리들이 늘어서 있다.